

학문적 성취와 수익성 '양수결장' 사례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은 학문적 성과의 매개체의 역할뿐 아니라 ‘경영마인드’의 구현에도 성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대학 불문학부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출판인 오 모씨는 “PUF는 ‘자유로운 지적 탐구와 경제적 동기 위에 설립됐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0년엔 이같은 취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리브리Libris’나 ‘플라마리용Flammarion’, ‘퐁다시옹 보드메Fondation Bodmer’ 등 우수한 출판재벌과 보험회사 등을 대거 주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학문적 목적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특히 미국 명문대학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예일대출판부는 설립 취지 첫머리에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뛰어난 편집과 디자인, 출판 그리고 마케팅과 결합함으로써 대학과 그 밖의 세계에 걸쳐 지적 영역을 확장하고 열정을 고취시키는 작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며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 끊임없이 그 지평을 넓힘으로써 대학출판 본연의 이념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95년 역사와 함께 수많은 도서출간 실적을 자랑하는 예일대출판부는 고도의 학술서적은 물론, 이같은 정신에 입각한 현대의 대중적 베스트셀러를 내놓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풀리처상을 받은 데이빗 리즈먼의 《고독한 군중》이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시백과 Encyclopedia of New York City》등이 모두 이곳 ‘작품’이다. 이와 함께 세계 전자출판 분야에서 최초로 CD-ROM 멀티미디어인 《퍼세스Perseus》를 펴내는 등 경영마인드에도 충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일대출판부 런던 지부는 ‘지부’라기보단 ‘글로벌 출판사’로 손색 없는 규모와 내용을 자랑한다. 지난 1961년 ‘마케팅 개념’을 토대로 설립된 이곳은 독자적이고 다양한 출판기획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일대학 당국 스스로 “미국의 대학출판부로서 유일하게 종합 출판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춘 출판사를 유럽에 설치했다”며 자랑해 마지 않는 곳이다.

출판의 질이나 내용면에서도 세계 정상급이다. 그동안 미술사와 건축 분야에서 활발한 출판작업을 벌여 토대를 쌓았으며, 최근엔 무역사와 정치학, 음악, 종교, 문학, 현대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들 출판물은 영국의 권위 있는 각종 상을 받기도 하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다.

일본 문부성, 학술서적 구매 파격지원

이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의 경우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학출판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다만 도쿄대나 와세다대 출판부의 경우 ‘학문적 정보 전달’이란 원론적 임무에 충실한 편이라는 평가다. 한국대학출판부협회 박방배 사무국장은 “물론 예외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상업적 목적의 출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고 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도쿄대출판부는 연중 100여 종의 신간을 펴내는 가운데, 각기 500권 이하의 부수가 그 중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일본 문부성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연간 3억 엔 정도의 예산을 책정, 전국 주요 도서관으로 하여금 10퍼센트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학술출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학술도서진흥정책과도 비슷하지만 지원의 규모나 성격면에선 크게 앞선 수준”이란 게 박 국장의 얘기다.

이에 비해 중국은 사회주의 특유의 대학출판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교 교과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책이란 책은 모조리 대학출판부가 도맡는 등 획일적인 시스템이 통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그 규모 또한 방대하기 짝이 없다. 청화대출판부의 경우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쓰며, 직원 숫자만 무려 6,000~7,000명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관행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특수한 모습일 뿐”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민**

출판저널 편집부